

“모국 청년들 세계 무대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장보고한상 어워드 대상’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유럽·아프리카 등 16개국에 30개 계열사 갖춰
장학 활동·고향 광주 대학생에 인턴 기회 제공

“해상왕 장보고의 후손으로서 더없이 기쁘면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광주 출신 재외동포 기업가인 영산그룹 박종범(62)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국회헌정회관에서 열린 ‘제 3회 장보고한상 어워드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장보고한상 어워드는 장보고글로벌재단과 완도군이 지난 2016년부터 해외에서 성공한 재외동포 가운데 ‘해상왕’ 장보고의 도전·개척 정신을 계승해 동포사회와 모국

의 상생 발전에 기여한 한상(韓商)에게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
대상을 받은 박 회장은 1999년 오스트리아에서 영산그룹을 창업해 19년 만에 유럽·러시아·아프리카 등 16개국에 30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으로 발전시키는 등 글로벌경영에 앞장선 유럽의 대표 한상이다.
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오스트리아 한인회장을 역임한 뒤, 재유럽한인회장 총연합회장과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을 맡기도 했다.

오랜 숙원이었던 비엔나한인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50만 유로(약 6억 5000만원)를 쾌척했으며, 태권도와 가곡, 오페라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유럽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과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금성훈장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박 회장은 고향 광주 후배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해 그룹 차원에서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광주지역 대학생들에게 인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턴으로 선발된 광주 대학생들은 그룹으로부터 항공권과 비자발급, 숙소, 활동비 등에 관한 일체를 지원받으며 3개월 동안 유럽 시장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박 회장은 “내가 고생하더라도 자식에게

만큼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 심정이다. 다음 세대들은 당당하고 넉넉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우리 청년들이 세계 어느 무대에서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 회장은 사업에서 뛰어난 실적을 쌓은 것뿐 아니라 동포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도 앞장섰다. 각종 장학 활동은 물론, 청년들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한 공로가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범 회장은 “한민족의 기상을 드높였던 장보고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을 더 열심히 일하고 모국과 고향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이 ‘제 3회 장보고한상 어워드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지역신문만의 콘텐츠 개발이 살 길...기자 윤리의식 제고도 시급”

김영호 우석대 명예교수 ‘지역 일간신문 윤리 교육 세미나’

한국의 기자 절반 가량은 보도를 위해 사진이나 편지 같은 개인 문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등 취재·보도와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윤리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우석대 명예교수(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사진)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주최로 지난 25일 전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 ‘지역 일간신문 윤리 교육 세미나’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조사 결과는 한국언론연구원의 언론인에 대한 조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집을 토대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이날 김영호 교수는 ‘지역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신문 윤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사 대상 기자의 50%는 개인 문서를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업이나 정부의 비밀문서를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속여도 된다는 답변은 70%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취재준칙에는 도청 및 비밀촬영을 금지하고 있지만 75%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출처가 분명치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할 때에도 ‘미확인’ 내용임을 명시해야 하나 80% 이상이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또 독자(시청자)가 ‘일상의 뉴스 및 시사정보를 얻는 매체’에 대한 조

사서 종이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2%에 불과했으며, 지역뉴스에 대한 관심과 관련해서는 외국 국가들의 관심도는 63%선이었지만 한국은 35%에 그쳐 종이신문, 특히 지역신문의 중요도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호 우석대 명예교수는 “저널리즘의 원칙에 충실한 언론이 곧 윤리적 언론이며, 언론 윤리의 원칙에 충실한 언론이 곧 좋은 언론이다”면서 “지역신문들은 자신들의 매체만이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하고, 지역민들이 언론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



강형구·이탁우·박우영·이송자·민경천·서한옥씨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수상

강형구 전남농구협회장 등 6명이 올해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최근 여수 전남경기장에서 열린 ‘제22회 도민의날 기념식’에서 이들에게 ‘2018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을 시상했다.
올해 수상자는 관광·문화·체육 분야에 강 회장과 이탁우 전 전남생활체육회장, 사회봉사 분야에 박우영 목포시립 이사장, 사회안전 분야에 이송자(새소비자교육

중앙회 전남도지부 회장, 도민소득증대 분야에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경제 분야에 서한옥 세동포토(주) 전 대표이사 등이다. 이중 강형구 회장은 지난 2005년 전남농구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14년간 약 2억 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2016년 전남체육대회 때부터 농구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하는데 기여했다.
/박정용 기자 jwpark@kwangju.co.kr

이정아 조선대 교수 정보통신전략위원 위촉

조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정아(사진) 교수가 최근 국무총리 산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토대를 둔 위원회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과기정통부(간사), 기재·교육·행안·문체·산입·복지장관 등 12명의 당연직 위원과 13명의 위촉직 민간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돼 있다.
이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석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부터 조선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윤영기 기자



“어린이에게 꿈과 창의력을” 동강대 ‘풍향 한마당 축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는 최근 광주풍향초등학교의 ‘풍향 한마당 축제’에서 블록로봇 만들기, 드론 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꿈과 창의력을 심어줬다. <동강대 제공>

조선대병원 장성 생촌마을서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봉사



조선대병원(병원장 배학연)은 최근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과 함께 장성군 삼계면 생촌마을을 찾아 ‘2018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을 열고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조선대병원 제공>

전기공사협 전남도회 영광 기초수급 가정 등 봉사활동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회장 전연수) 전기사랑봉사단(단장 정병섭)은 영광경영자협의회(회장 정재성)와 함께 영광군 영광읍 기초수급자 가정 등 9가구에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기공사협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 ▲동래정씨 광주전남화사회(중시조 선산유적순례 일현참배)=31일(수) 오전 7시 광주상록회관 출발(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부유리 충정공(휘)창손(영의정) 동산재 신도비각 신도비), 회장 정진원 010-3609-2523.
- ▲경주배씨 광주 종친회 중시조(무열공) 대제=11월1일(목) 오전 7시 동부경찰서 뒷편서 출발(대구 영정각 도착), 회장 배경석 010-8623-4949.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직 기간 위탁할 인턴 상담 062-351-1206.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 ▲설원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C(로고)공모=12월7일까지, 만 19세 이상 광주시민과 광주지역 대학(원)생 등 개인 또는 팀(2인 이하) 센터 홈페이지(gjds.or.kr)참조.
- ▲광주전남연구원 남도학연구센터 ‘공간으로 읽는 남도학’ 무료 강좌=11월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연구원 8층 상상마루 061-931-9436.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 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이자, 장례지도사무이자 지원 062-369-4009.
- ▲슬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

- (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더’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화순 호시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본관 2층 특9호 故차영순 님(여/74세) 子/子婦: 국경리/엄현주 女/婿: 국도연/김선진	본관 3층 특12호 故황의담 님(남/88세) 子/子婦: 황석연/김경숙, 재연/송수정, 길연/정은영 女/婿: 황수경/김옥용
--	---

◇입관: 10/28 11:00 ◇발인: 10/29 08:30
◇장지: 영광읍선영(매) ◇연락처: 250-4409

◇입관: 10/29 11:00 ◇발인: 10/30 07:00
◇장지: 임실읍국원(화) ◇연락처: 250-4412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회장 김 영 관
24시 대기
062-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kr